

대구중화기독교회의 운영과 화교사회

— 『양춘상장로소장자료』를 근거로 —

이 정 희*

국문초록

본고는 대구중화기독교회의 운영 실태를 『양춘상장로소장자료』를 통해 분석한 것이다. 이 자료는 1970년 전후 대구교회 내부의 각종 교회 운영 관련 귀중한 자료이다. 대구교회는 설립 초기 홍대위 초대 목사의 역할이 컸으며 2대 정신 목사에 의해 기반이 다져졌다. 교회 건물은 1967년과 1968년 화교 모문금과 한국인 이태중에 의해 각각 시공되었다. 대구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장집동공회를 조직하여 교회를 운영했으며, 1971년 7개 화교교회로 구성된 여한중화기독교연합회에 소속되어 활동했다. 대구교회는 교인의 각종 헌금을 수입으로 운영되었고 연합회에 연수입의 10-15%를 회비로 냈다. 대구교회는 대구지역 화교사회, 타 지역 화교교회 등과 관계를 맺으며 운영을 했으며, 대구지역의 한국인 교회 등과의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대구교회는 대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성경과 성가집은 대만에서 구매했다.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hwsan@hanmail.net

주제어 : 화교교회, 대구중화기독교교회, 양춘상장로소장자료,
여한중화기독교연합회, 정신, 홍대위, 한성중화기독교교회, 대만

1. 서론

디아스포라(diaspora)는 원래 어느 민족집단이 원래의 토지에서 이산(離散)하는 것을 가리키며, 역사적으로는 주로 유대민족의 이산경험에 대해 사용되어왔지만, 최근에는 국민국가의 틀속에서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의 이동과 그에 따른 사회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¹ 세계에는 여러 민족의 디아스포라가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것은 화교·화인 디아스포라이다. 화교·화인 디아스포라의 인구는 현재 약 5천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교·화인 디아스포라는 이주한 국가와 지역에서 중국인성(中國人性)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집단거주하면서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G2 부상과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으로 화교·화인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화교·화인은 중국 본토를 떠나 이주지에 정착하여 몇 대에 걸쳐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인성을 유지하면서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원인은 모국인 중국과 이주지 화교·화인사회의 양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국 '중국'은 화교·화인을 중국의 전통문화와 언어로 일체감을 가져다주는 근원이다. 화교·화인은 이주지에서 각종 사회단체와 학교를 설립하여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 및 유지함과 동시에 거주

1 赤尾光春・早尾貴紀 編, 『ディアスポラから世界を読む』(明石書店, 2009), p.4.

사회와 끊임없는 관계를 추구한다. 그런데 화교·화인사회의 중국인성을 유지하는데 종교의 역할은 크다. 세계의 차이나타운에는 마조묘(媽祖廟)와 관제묘(關帝廟)와 같은 도교식 사원이 세워져 화교·화인은 이들 공간을 통해 종교생활을 영위하며 그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한다.² 하지만, 화교·화인은 중국 기원의 도교, 민간종교, 민간신앙뿐 아니라 기독교의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많다.

세계화복중심(世界華福中心, CCCOWE)이 집계한 세계 각지의 화교·화인의 교회는 약 9천여개이며 교인수는 20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 홈페이지에 존재가 확인된 화인교회는 6,093개였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중화권에 속하는 홍콩·대만·마카오에 3,064개가 자리하여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아시아 지역이 1,572개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동남아 지역이 1,530개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은 북미가 1,030개로 전체의 16.9%, 오세아니아 225개(전체의 3.7%), 유럽 129개(2.1%), 남미 38개, 아프리카 35개로 그 뒤를 이었다.³

물론 홍콩·대만·마카오 소재의 교회를 화교·화인교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들 지역의 교회를 뺀 순수 화교·화인교회만 하더라도 전세계에 6천여개 존재한다. 화교·화인은 교회를 세워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자신들만의 종교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한국에도 화교교회가 7개 존재한다. 서울 소재의 한성중화기독교회, 영등포중화기독교회, 부산 소재의 부산중화기독교회, 인천 소재의 인천중화기

2 한국에는 한국화교의 도교식 사원인 의선당(인천 소재)과 거선당(서울 소재)이 있다. 두 사원은 관우와 마조를 모시고 있다. 의선당과 거선당이 화교의 종교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정희(2018)을 참조 바람.

3 世界華福中心(CCCOWE) 홈페이지(<http://www.cccowe.org>). 2019년 9월 6일 열람. 세계화복중심은 세계 각지의 화교·화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 단체로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다.

독교회, 군산 소재의 군산중화기독교교회, 수원 소재의 수원중화기독교교회, 그리고 대구 소재의 대구중화기독교교회이다. 이들 7개 화교교회는 여한중화기독교연합회에 소속되어 하나의 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성중화기독교교회(이하 한성교회)는 1912년 선교사 유디스 데밍(Edith Derming)과 화교 차도심(車道心)에 의해 설립된 한반도 최초의 화교교회이다. 그 뒤 1917년에 원산과 인천, 1923년에 평양, 1929년에 부산에 각각 화교교회가 설립되었다. 해방 후 남북 분단으로 38도선 이북의 원산과 평양교회가 문을 닫고 이남의 한성, 인천중화기독교교회(이하 인천교회), 부산중화기독교교회(이하 부산교회)는 그대로 이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해방 후 새롭게 설립된 화교교회는 수원중화기독교교회(1955년, 이하 수원교회), 대구중화기독교교회(1957년, 이하 대구교회), 영등포중화기독교교회(1958년, 이하 영등포교회), 군산중화기독교교회(1959년, 이하 군산교회), 대전중화기독교교회(1960년, 이하 대전교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대전교회는 1968년경 문을 닫았다. 이처럼 한반도 화교교회의 역사가 107년이 나 되는데도 화교교회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화교교회 전반의 역사를 다룬 김교철(2017)의 연구, 재조선구미선교사의 중화기독교교회 지원활동을 검토한 이해원(2018)의 연구, 원산중화기독교교회의 역사를 검토한 이해원(2019.6.29)의 연구, 한성교회 장로인 왕공온(王公濶)의 건축시공활동을 분석한 이해원(2018.5.12.)의 연구 등이 있다.

본고는 7개 화교교회 가운데 해방 후 2번째로 설립된 대구교회에 대해 검토하려 한다. 대구교회의 역사에 관해서는 이 교회에서 2002년 9월 29일부터 2004년 7월 10일까지 목사로 근무한 김교철의 선행연구가 있다.⁴ 그러나 화교교회 전반의 역사를 다룬 논고이기 때문에 대구교회의 내용은 매우 빈약하다. 그 이외에 한성교회 90주년 기념에 맞춰 2002년에 발

4 김교철, 「在韓 중국인 교회 설립과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복음과 선교』 제372집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2017), p.41.

간된 『여한중화기독교창립90주년기념특간』(旅韓中華基督教創立九十週年紀念特刊)⁵, 100주년 기념에 맞춰 2013년에 발간된 『여한중화기독교 100주년기념특간』(旅韓中華基督教百年紀念特刊)⁶에 각각 대구교회가 직접 집필한 교회의 역사가 실려있다. 그리고 2017년 대구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한 『여한대구중화기독교회창립60주년기념특간』(旅韓大邱中華基督教會創立六十週年紀念特刊)은 앞의 두 자료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사진, 교회 관련 인사의 축사가 실려있다.⁷ 대구교회가 자신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것은 한성교회 이외는 처음이며, 이로 인해 대구교회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잘 남아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교회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정리한 수준이어서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지역 화교사회 및 한국인 지역사회와 어떤 연관 속에서 운영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담겨있지는 못하다.

본고는 대구교회에서 50년간 봉직한 양춘상(楊春祥) 장로 소장의 자료(이하 『양춘상장로소장자료』로 표기 함)를 활용하여 상기의 문제를 검토하려 한다.

2. 『양춘상장로소장자료』의 현황

양춘상은 1930년 2월 8일 중국 산둥성(山東省) 모평현(牟平縣) 양마도(養馬島)에서 태어났다. 1943년경 황해도 해주에 거주하는 누나를 의지

5 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 「大邱中華基督教會創立及發展史」, 『旅韓中華基督教創立九十週年紀念特刊』(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 2002), pp.101-103.

6 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 「大邱中華基督教會創立及發展史」, 『旅韓中華基督教百年紀念特刊』(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 2013), pp.116-119.

7 旅韓大邱中華基督教會, 『旅韓大邱中華基督教會創立六十週年紀念特刊』(旅韓大邱中華基督教會, 2018), pp.1-102.

하여 신의주, 평양을 거쳐 해주로 이주했다. 누나는 결혼하여 자형과 같이 잡화상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도착 후 처음에는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했다. 해방 후에는 채소 행상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는데 그 지역에 주둔한 소련군에게 채소를 판매하기도 했다. 1948년~1949년경 중국공산당이 북한의 화교연합회(華僑聯合會)를 통해 젊은 화교 청년을 군인으로 모집하는 공작을 펼치기 때문에 한국으로 탈출할 것을 결심하고, 황해도 연안 등을 거쳐 인천에 도착했다. 인천에서는 화교 경영 한약방에서 도제로 기술을 익혔다.⁸ 1953년 화교 여성인 담봉영(譚鳳英, 1932년생)과 결혼했다. 담봉영은 같은 산둥성 모평현에서 태어나 중일전쟁 직전 가족과 함께 개성으로 이주했다. 부친은 그곳에서 주단포목상점을 경영했다. 담봉영은 기독교계의 조선인 사립학교와 조선인 교회의 주일학교를 다녔다. 해방 직후 황해도 연안에서 거주했는데 한국전쟁 발발 직전 언니와 형부(주한중화민국대사관 근무)가 거주하는 서울로 이주했다.⁹

양춘상은 인천에서 한약방의 도제로 오래동안 일하다 한약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결심했다. 한약업사는 한약방을 경영하기 위한 자격증이다. 자격증 시험은 각 지역 한약협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했다. 대구시한약협회가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1961년 5월 27일이었고, 한약업사 자격증 시험실시를 결정한 것은 1962년 9월 11일이었다. 양춘상이 1961년경 수도권에서 대구로 이사한 것은 이러한 정보를 접했기 때문이었다.¹⁰ 양춘상은 대구시한약협회가 처음으로 1962년에 실시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다. 그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의 취득일은 1963년 2월 10일이다. 이때부터 양춘상은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서 익생춘(益生春) 한약방을 경영했는데, 2014년 11월 대만으로 재이주하기까지 그곳에서 50년간 영업했다.

8 양춘상 장로 인터뷰(대구 익생춘 한약방에서 2005년 2월 20일, 2006년 4월 25일).

9 담봉영 집사 인터뷰(대구 익생춘 한약방에서 2005년 2월 20일).

10 大韓韓藥協會 편, 『大韓韓藥協會百年史』(大韓韓藥協會, 2006), pp.846-848.

부인 담봉영은 대구로 이주한 직후인 1962년경부터 대구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담봉영은 몇 번이나 양춘상에게 교회에 나갈 것을 권유했지만, 그때마다 거절당했다고 한다. 양춘상은 부인의 간곡한 부탁에 특별 전도회 모임에 나갔는데, 그때 목사의 설교에 감화되어 입교했다. 1966년에는 집사로 임명되었으며, 1972년 익생춘 한약방이 화재를 입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의 신앙은 더욱 깊어갔다. 1974년에는 장로로 임명되었다.¹¹ 같은 해 장로로 함께 임명된 서국훈(徐國勛) 대구화교소학 교장이 1983년 미국으로 재이주한 후에는 단 한 명 남은 장로로서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1974년 12월 정신(丁信) 목사가 서울의 한성교회로 옮긴 후, 대구교회는 잇따른 목사 및 전도사 교체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냈다. 교회는 목회자가 부재한 시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교회를 지킨 것은 양춘상 장로였다. 그는 홀로 회계를 담당하고 설교도 했으며 1인 다역의 역할을 했다. 대구교회의 원로 장로로 추대된 2004년 3월 이후에도 10년간 교회를 지켰다. 이처럼 양춘상 장로는 1964년경부터 2014년까지 50년간 대구교회의 집사, 장로, 원로장로로 근무한, 교회의 산증인이다.

양춘상 장로는 교회 관련 각종 자료를 익생춘 한약방에 귀중하게 보관했다. 이 자료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진 적은 없었다. 필자가 『양춘상장로 소장자료』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2017년이였다. 타이베이에서 잠깐 대구에 들른 담봉영과 그녀의 딸 양취연(楊翠娟)의 초대로 익생춘한약방을 방문했을 때였다. 필자는 당시 대구교회의 장여혜(臧汝惠) 전도사로부터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지 간행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교회 관련 자료나 사진이 없는지 두 명에게 물어보았다. 그때 양취연이 보여준 것이 양춘상 장로 소장의 교회의 자료와 사진이었다. 필자는 이 자료가 교회의 역사를 해명하는데 귀중하다는 판단하에 두 명의 허락

11 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 2002, 앞의 책, pp.159-160.

을 받고 자료를 스캔했다.¹²

〈표 1〉 『양춘상장로소장자료』 주요 목록

작성연월일	자 료 명	수량
1967.9.17~11.18	교회 지출 각종 영수증	8장
1967.9.9~11.15	모문금 공사대금 영수증	7장
1968.4.10~11.29.	이태중 공사대금 영수증	35장
1969.1.4~12.30.	교회 신문구독료, 수도료 및 각종 지출 영수증	7장
1969.12	교회 1970년 예산표	1장
1970.1.1~12.31	교회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 신문구독료, 방법비, 청소비 등 각종 지출 영수증	170장
1970.1	교회 1969년 결산 보고표	1장
1970.12.20.	교회 1970년 수지 일람표	1장
1973.1.1~12.31	구독료, 경목사업보조비, 수도료, 청소비, 신문구독료, 전기료, 전화료 등 각종 지출 영수증	163장
합계	-	393장

자료: 『양춘상장로소장자료』를 근거로 필자 작성.

『양춘상장로소장자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의 점수는 393장으로 시기는 1967년부터 1973년에 걸쳐 있는데 1971년과 1972년의 자료는 없다. 자료는 대부분 영수증이 차지한다. 이들 영수증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교회의 각종 공과금 영수증이다. 여기에는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 신문구독료, 방법비, 청소비 등이 포함된다. 둘째, 교회 운영을 위한 각종 지출 영수증으로 목사의 국내 각지 출장의 여비, 외부 목사 초청비, 교회 각종 행사비, 교회의 각종 비품 구입비이다.

12 소장자료 가운데 사진 자료는 『여한대구중화기독교교회창립60주년기념특간』에 일부 사용했고, 기념지 출판 일정과 필자의 눈 상태가 좋지 않아 기념지에 문자 자료를 넣지는 못했다. 필자는 스캔 후 양춘상 장로 소장 교회 자료와 사진 원본을 모두 반납했다.

셋째, 교회 건축 공사비 영수증이다. 대구교회는 1967년과 1968년 교회당 건축을 위한 공사를 했는데 시공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영수증이 남아있다. 넷째는 교회의 예산 및 결산 보고표로 1969년의 결산 보고표, 1970년의 예산표, 1970년 수지일람표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 393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공과금 영수증과 교회 운영비 영수증이며, 건축 공사대금 영수증은 전체의 10.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처럼 『양춘상장로소장자료』는 1970년 전후 대구교회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때의 교회 내부의 자료이다. 한국의 중화기독교회 가운데 교회 내부 운영 자료를 이처럼 잘 보존한 경우가 없었으며, 그것이 각 교회의 역사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는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한계성 때문에 화교교회를 다룬 신문이나 선교사 등의 기록을 주로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양춘상장로소장자료』는 한국 화교교회의 첫 내부 자료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3. 대구교회의 설립과 교회당 건축시공

대구교회는 1957년 6월 30일 대구 삼덕교회에서 대구 거주 화교를 대상으로 한 주일예배에서 시작됐다.¹³ 당시 대구 삼덕교회의 담임목사는 홍대위(洪大衛, 1890~1973)였다. 『三德教會三十年史』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목사 홍대위는 1890년 2월 26일 경기도 개성시에서 부친 홍순학씨의 2남 1녀 중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1921년 중국 호북성(湖北省) 신의신학교(信義神學校)를 졸업하고 동년 중국 기독교 신의회 목사로 안수 받았

13 「대구 中華교회 설립」, 『韓國基督公報』, 1957.7.22. 김교철, 앞의 논문, 2017, p.41에서 재인용.

다. 그후 1932년 청도(靑島)시 신의신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해방 후 1949년 서울 승동교회에 부임 봉직하다가 6·25사변 후인 1952년 대구 고등성경학교 교장으로 수고하였다. 그후 전술한 바와 같이 (1952년) 8월말 본 교회에 부임하였다. 본 교회 청빙을 받은 홍대위 목사는 부산에 가서 피난와 있던 승동교회 당회에 사표를 제출하여 시무 사면을 하고 본 교회에 부임하였다.”¹⁴ 홍대위 목사는 1952년 63세의 나이에 삼덕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후 1969년까지 근무했다. 교회의 당회는 그를 1970년 9월 13일 공로 목사로 추대했다. 홍 목사는 1973년 7월 19일 숨을 거두었으며, 7월 21일 경북노회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¹⁵

이처럼 홍대위 목사는 중국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와 교수로 오랫동안 활동한 중국통이었기 때문에 화교 목회에 관심을 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1954년 중국에서 목회활동을 한 한국인 목사로 구성된 중화기독교회 재건위원회에 참가하여 중일전쟁과 한국전쟁으로 교세가 쇠퇴한 한성교회, 인천교회, 부산교회의 재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¹⁶ 그리고 홍 목사는 자신이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대구의 화교에 관심을 가졌다. 1949년 대구·경북지역 화교인구는 961명(남자 461명, 여자 500명)으로 이 가운데 대구시 거주 화교의 인구는 525명(남자 297명, 여자 228명)이었다. 당시 한국화교의 인구가 21,985명이었기 때문에 대구·경북지역 화교인구는 전체 화교인구의 4.4%를 차지했다.¹⁷ 그러나 한

14 三德教會 편, 『三德教會三十年史』, 대구: 삼덕교회, 1984, p.51.

15 三德教會 편, 앞의 책, 1984, pp.77-78·89-90. 1964년 삼덕교회에서 홍대위 목사로부터 장로 안수를 받은 김재진(1925~현재) 경북대 명예교수는 홍 목사의 설교에 많은 감화를 받았고, 그가 쓴 책 『구원의 진리』는 신도들 사이에 많이 읽혔다고 했다.(2013년 9월 13일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인터뷰) 1957년부터 1964년까지 인천중화기독교회의 목사로 근무한 이만열(李萬悅) 목사는 홍 목사의 설교에 감화하여 기독교에 입교했다. 이만열 목사는 그 후 서울 삼덕교회의 목사로 근무하다 해외 거주 중국인을 위한 선교사로 활동했다.

16 김교철, 앞의 논문, 2017, pp.40-41.

국전쟁 때 서울, 인천 및 기타 지역에서 대구·경북지역으로 피난 온 화교로 인해 지역의 화교인구는 1954년 2,191명으로 급증했다. 1949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대구자치구 1,864명, 경주자치구 124명, 김천자치구 83명, 포항자치구 110명이었다. 전체 화교 22,090명에서 대구·경북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로 상승했다. 인구의 구성은 15세 이상이 1,352명, 15세 이하가 839명으로 15세 이하 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¹⁸

대구화교가 1957년 6월 30일 삼덕교회에서 첫 주일예배를 드릴 당시의 대구 거주 화교는 2천여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교회는 교인이 증가하면서 중구 계산동의 작은 집을 구매하여 임시 교회당으로 사용했다. 홍대위 목사가 목회를 했으며, 한국인 박부옥(朴富玉) 전도사와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인 맥클레인(Helen McClain, 梅凱蘭)이 홍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도왔다. 맥클레인 선교사는 중국에서 활동하다 중국 공산화 이후 파키스탄으로 이주하여 영어교육을 담당했다. 1955년 한국 이주 후 한국화교를 위한 전도활동을 펼쳤다. 맥클레인은 대구교회 설립 초창기 사진에 홍대위 목사와 함께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맥클레인은 1962년 대만에서 정신(丁信) 목사를 자비로 청빙, 대구교회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¹⁹ 1960년경 계산동 교회 시기 교인은 20여명에 불과했지만, 집사회가 조직

17 大韓民國公報處統計局, 『1952年 大韓民國統計年鑑』(공보처, 1953), pp.25-28.

18 華僑誌編纂委員會 編, 『韓國華僑誌』(華僑誌編纂委員會, 1958), pp.53-56. 주한중화민국대사관은 전국의 화교를 48개 자치구로 나눠 관리했다. 자치구의 지도자는 구장(區長)이라 했다. 대구·경북지역 화교의 역사와 그들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이정희(2005)를 참조 바람.

19 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 앞의 책, 2013, pp.40-41. 맥클레인 선교사는 1963년부터 1968년까지 대전중화기독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했다. 1968년 한국을 떠나 대만으로 이주, 대만에 유학 온 한국화교 청년을 대상으로 목회활동을 지속했다. 1975년 미국으로 영구 귀국했다.

되어 교회가 운영됐다. 당시의 집사는 화교 왕문욱(王文郁), 소종귀(蘇鐘貴), 하전기(何傳岐), 서국훈(徐國勛), 서봉평(徐逢平), 서지화(徐芝華), 이벽진(李碧珍), 유미진(劉美珍)의 8명이었다.²⁰

대구교회의 교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기존의 계산동 예배당으로는 교인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교회당 건축을 계획했다. 정신 목사는 1964년 6월 중구 수동 62번지의 주택을 구입하여 임시 집회소로 삼은 후,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1967년 4월 교회 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교회의 건축 공사 담당 집사는 서봉평, 왕문욱, 양춘상의 3명이었다.

교회의 설계 및 공사 책임은 화교 모문금(慕文錦)이 담당했다.²¹ 모문금은 대구·경북지역 화교사회의 지도자이자 지역의 주요 종교건축물을 시공한 쌍흥호(雙興號)의 경영자였다. 그에 관해서는 필자의 연구에 의해 비교적 소상히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하 간단히 서술하도록 한다.²²

그는 1895년 10월 28일 산동성 황현(黃縣) 동마원(東麻院) 모가촌(慕家村)에서 태어났다. 1904년 모가촌의 사숙(私塾)에 입학하였고, 1912년 12월 12일 사숙을 휴학했다. 1913년 3월 15일 경성으로 이주하여 경성 정동에 있던 쌍흥호(雙興號) 건축 시공회사의 서기로 취직했다. 그는 쌍흥호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1915년 4월 1일부터 설계사로 승진했다. 약 2년 설계사로 일한 후 1917년 3월 31일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쌍흥호를 떠났다. 그는 대구시 남산정(南山町) 190번지에 소재한 대구 쌍흥호의 책임경리로 1920년 4월 1일 취직했다. 이때부터 모문금은 지역의 굴직한 종교 및 학교 건축물 시공을 담당했다. 그가 시공에 참가한 건축물은 가실성당, 성바오로수녀원의 수련소, 하양성당, 김천 황금성당, 서병국주택,

20 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 앞의 책, 2002, p.101.

21 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 앞의 책, 2002, p.101.

22 이정희, 「조선 화교의 성당건축 시공 활동(1880년대~1930년대):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51(한국교회사연구소, 2017), pp.69-75.

계성학교 헨더슨관(Henderson관) 등이다. 그의 시공 활동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졌다. 조선은행조사부는 1948년 쌍흥호에 대해, “미군의 위탁청부와 그 밖의 건축 사업으로 여전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해방 후에도 활발한 건축 시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²³

그러한 모문금이 72세의 나이에 대구교회의 시공을 맡은 배경이 주목된다. 그는 1967년 교회의 1층 건물을 시공한 직후인 1968년 자식이 거주하는 대만의 타이베이로 이주했기 때문에 이 건물은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된다. 자신의 동포인 화교 기독교 교인이 예배드릴 변변한 교회가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선물해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입증할 자료나 증언은 확보하지 못했다.

『양춘상장로소장자료』에 모문금이 대구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수취했다는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다. 영수증은 7장인데 모두 모문금이 친필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었다. 모문금의 친필과 인장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수증의 발행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배열해 보면, 1967년 9월 1일, 9월 9일(2장), 10월 7일, 10월 27일, 11월 15일, 11월 28일이다. 영수한 공사대금은 9월 1일 200,000원, 9월 9일 289,700원, 10월 7일 100,000원, 10월 27일 100,000원, 11월 15일 50,000원, 11월 28일 100,300원이다. 모문금이 영수한 총금액은 840,000원이었다. 9월 9일 영수증은 2장인데 2장은 모두 공사 재료의 인수대금으로 수령한 영수증이었다. 한 장은 시멘트 500포에 124,100원, 철근 65,600원으로 총 189,700원의 영수증이었고, 또 다른 영수증은 철근 100,000원의 영수증이었다. 그 이외 4장의 영수증은 ‘대구중화기독교회신축공사대금중 일부’로 기재되어 있어 모문금이 직접 수령하는 공사시공대금으로 보

23 조선은행조사부, 「재한화교의 경제적 세력」, 『경제연감 1949년』(조선은행, 1949), p. II-74.

인다. 그런데 각 영수증은 왼쪽 상단에 번호가 붙여져 있다. 9월 1일 영수증은 No.2, 9월 9일은 No.3과 No.4, 10월 7일은 No.6, 10월 27일은 No.7, 11월 15일은 No.11, 11월 28일은 No.12 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문금의 영수증은 9월 1일 이전의 1장, 9월 9일과 10월 7일 사이 1장, 10월 27일과 11월 15일 사이 3장, 총 5장은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1월 28일의 No.12가 마지막 영수증이 아닐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영수증을 모두 포함한다면 교회 1층 건물의 공사비는 100만원을 훨씬 상회했을 것이다. 1970년 교회의 연간 수입이 약 100만원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공사대금 조달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모문금에게 공사대금을 일괄지급하지 않고 분할 지급한 것도 이러한 교회의 재정상태 때문이었다.

대구교회는 1967년 교회 1층 건축을 준공한 다음 해, 곧바로 교회 2층 공사를 시작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문금은 1968년 타이베이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 공사를 맡지 않았다. 그의 뒤를 이어 2층 공사를 담당한 것은 한국인 이태중(李泰中)이었다.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지만, 1968년 9월 2일 영수증에 “信弟 몸이 좀 不便하여 人便을 보내었더니 목사님께서 너무 心慮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많이 不便한 것은 아니옵니다.”라는 글을 보면, 이태중이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보인다.²⁴ 또 다른 영수증에는 ‘韓國人 李泰中 執事’라 한 것을 보면 지역의 한국인 교회 집사이면서 정신 목사를 잘 아는 기독교인으로 보인다.

『양춘상장로소장자료』 가운데 이태중이 1968년 4월 10일 대구교회로부터 교회증축공사 착수금으로 10만원을 받은 영수증이 있다.²⁵ 이 영수증으로 볼 때 교회 2층 공사는 이때쯤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태중이 담당한 공사는 교회 2층 증축공사뿐 아니라 교회 옆 부지에 들어서

24 이태중,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68.9.2.

25 이태중,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68.4.10.

있는 주택도 포함된 것 같다. 4월 16일 영수증은 이태중이 50,000원과 265,000원을 각각 수취했다는 영수증인데, 265,000원의 금액 뒤에는 ‘가옥대조’(家屋代條)라 적혀 있다.²⁶ ‘가옥대조’는 바로 교회 1층 건물 옆의 주택을 지칭하는 것 같다. 이 가옥은 정신 목사 가족이 거주할 주택이었다. 5월 13일 영수증에는 ‘주택공사금70중’(住宅工事金七十中) 10만원을 영수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주택 공사비 총액은 70만원으로 약 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이처럼 1968년의 교회 증축공사는 교회 2층 증축과 주택을 동시에 시공했던 게 분명하다.

이태중은 11월 29일 영수증에 11만원의 공사대금 뒤에 자필로 ‘中華基督教會 工事金 完全히 計算이 끝났습니다.(完全領受)’로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교회 증축공사는 11월 말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²⁸ 따라서 증축공사는 4월 10일경부터 시작되어 7개월 20일 동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영수증을 근거로 증축 공사비를 계산해 보면 180여만 원이 들었다. 이 가운데 주택 공사비가 70만원, 교회 2층 증축 공사비가 110만여 원이 든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대구교회는 증축공사 시 종사한 일꾼에게 식사를 가끔 제공했다. 교회는 4월 11일 일꾼의 식대로 1,040원을 지출했고, 7월 8일에는 1,390원을 지출했다.²⁹

대구교회는 1968년에 들어 1층 예배당을 치장하기 위한 각종 설비를 구입했다. 1층 예배당의 설비로 1968년 6월 15일 대구 남산동 소재의 성복가구사(聖福家具社)로부터 강대상, 성찬상, 화병대 등을 26,600원에 구입했다.³⁰ 7월 8일에는 계산동 소재의 대원목공소(大元木工所)로부터 긴

26 이태중,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68.4.16.

27 이태중,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68.5.13.

28 이태중,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68.11.29.

29 대구중화기독교회,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68.4.11., 1968.7.8.

30 성복가구사,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68.6.15.

의자 40개, 강대를 135,000원에 구입했다.³¹ 7월 20일에는 북성로 소재 東信비니루商工社에서 장판을 8,584원³², 7월 27일에는 삼영하드보드경 북특약점에서 장판을 5,280원 각각 구입했다.³³ 7월 31일에는 계산동 소재의 대동유리상사로부터 유리 6장을 900원에 각각 구입했다.³⁴

대구교회는 2층 공사 종료를 전후하여 각종 자재를 구입했다. 11월 22일과 23일에는 동산동 소재 동아목재사(東亞木材社)에서 380원과 2,880원의 건자재를 구입했다.³⁵ 11월 20일에는 삼덕동 소재의 신흥건재사(新興建材社)에서 1,470원의 건자재를 구입했다.³⁶ 11월 18일에는 서성로 소재 수복공업사로부터 2,000원, 23일에는 1,500원의 난로, 연통 등을 구입했다.³⁷ 이러한 지출은 2층 공사 막바지 작업에 필요한 건자재의 구입에 사용되었다.

대구교회는 2층 공사 완료 후인 11월 26일 헌당식 행사를 거행했다. 헌당식 행사 준비를 담당한 서봉평(徐逢平) 집사가 지출한 금액은 총 61,590원에 달했다. 이러한 지출금액으로 볼 때 각지의 화교교회 목사, 장로, 집사 등이 참가한 큰 행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헌당식 행사 때 대구교회는 대구 삼덕교회 및 흥대위 목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감사장은 “본 교회 건축 개시 이래 귀 교회는 헌금과 중보기도를 해줌으로써 성전이 예정 기일에 맞춰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함과 동시에 감사장으로 본 교회의 마음을 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³⁸

31 대원목공소,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68.7.8.

32 동신비니루상공사,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68.7.20.

33 삼영하드보드경북특약점,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68.7.27.

34 대동유리상사,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68.7.31.

35 동아목재사,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68.11.21., 1968.11.23.

36 신흥건재사,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68.11.20.

37 수복공업사,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68.11.18., 1968.11.23.

38 대구중화기독교교회, 「감사장」,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68.11.26.

삼덕교회와 홍대위 목사는 대구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을 했고, 교인들이 기도를 해주었던 것이다. 『양춘상장로소장자료』 가운데, 홍대위 목사가 건축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를 독려한 사진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대구교회의 초대 목사로서 교회 건축에 물심양면의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대구교회의 운영 실태

1) 대구교회의 조직

대구교회는 한국의 일반 교회와 거의 비슷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교회 조직도상 목사가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그 아래에 장로와 집사가 목사의 교회 운영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구교회의 목회자는 설립 이래 초대 홍대위 목사부터 현재의 장여혜 전도사까지 모두 15명이 근무했다. 정신 목사의 재임 기간은 11.2년, 장여혜 전도사 6.8년, 홍대위 목사 5.3년으로 비교적 장기간 근무한 편이며, 그 이외 목회자의 재임 기간은 3년 이하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표 2> 참조)

〈표 2〉 대구중화기독교교회 역대 목회자 및 재임 기간

역대 목사 및 전도사	재임 기간	비고
홍대위(洪大衛)	1957.6.30~1962.9(재임기간 5.3년)	삼덕교회 담임목사 (한국인)
정신(丁信)	1962.9~1974.12.15(동 11.2년)	목사, 한성교회로 이동
진진화(陳振華)	1974.12.22~1975.10.12(동 0.9년)	목사, 일본으로 이주
손동병(孫東屏)	1977.12.11~1979.3.18(동 2.2년)	목사, 병환으로 대만 귀국

역대 목사 및 전도사	재 임 기간	비고
우심화(于心華)	1985.3.17~1985.7.31(동 0.4년)	전도사
곡야상(曲耶爽)	1985.8.4~1987.2.18(동 1.4년)	전도사, 부산으로 이주
황강예(黃剛銳)	1988.9.28~1990.6.3(동 1.7년)	목사, 대만으로 귀국
진육화(陳陸華)	1990.6.3~1993.12.27(동 2.5년)	전도사, 근무 중 목사 안수
구육리(仇毓利)	1995.10.22~1997.2.6(동 2.1년)	전도사
왕준문(王俊文)	2001.5.10~2002.9.29(동 1.4년)	전도사, 수원교회로 이동
김교철(金教哲)	2002.9.29~2004.7.10(동 1.8년)	한국인 목사
요적복(姚積福)	2006.1.1~2006.8.20(동 0.7년)	목사
위약한(魏約翰)	2006.8.27~2007.10.31(동 0.3년)	목사
호문군(胡文君)	2010.6.24~2010.11.3(동 0.4년)	전도사, 필리핀으로 이주
장여혜(臧汝惠)	2013.1.1~현재(동 6.8년)	전도사

자료: 旅韓大邱中華基督教會, 앞의 책, 2018, pp.5-8.

장로와 집사는 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임원이었다. 대구교회에서 장로로 임명된 것은 양춘상과 서국훈 2명뿐이었다. 두 명은 모두 1974년 3월 26일 장로로 임명되었는데, 서국훈 장로가 1983년 8월 24일 미국으로 재이주하면서 장로는 양춘상 1명만 남았다. 대구교회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집사의 수는 많지 않았다. 1992년 당시의 집사는 7명으로 구비소(邱丕昭), 추적서(鄒積瑞), 배진지(裴振芝), 서경안(徐慶安), 담봉영(譚鳳英), 정소언(程素言), 유향란(劉香蘭)이었다.³⁹ 구비소는 대구에서 장생양조합자회사를 설립하여 크게 성공한 후,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대구화교협회장을 지낸 인물이다.⁴⁰ 담봉영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39 旅韓大邱中華基督教會, 『教會手帖』(旅韓大邱中華基督教會, 1992), p.14.

양춘상 장로의 부인이다.

대구교회는 장로와 집사로 구성된 장집동공회(長執同工會)가 조직되어 있었다. 장집동공회는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개최되었다. 장집동공회 산하에는 주일오전예배, 주일오후예배, 수요일예배, 자매회, 시반(詩班, 성가대), 청년회, 주일학교 등이 있었다. 1973년의 주일학교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주일오전예배는 10시, 주일오후예배는 오후 5시였다. 일요일 예배와는 별도로 기도회가 수요일 오후 7시에 개최되었다. 자매회는 금요일 오후 2시, 청년회는 토요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렸다.⁴¹ 그 20년 후인 1992년의 주일오전예배는 일요일 오전 10시, 주일오후예배는 오후 5시로 1973년과 같았다. 주일학교는 이전의 일요일 오전에서 오후 1시로 바뀌었다. 자매회는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청년회는 토요일 오후 2시 30분으로 이전에 비해 각각 30분 뒤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수요일 기도회는 사경기도회(查經祈禱會)로 명칭이 바뀌었고, 개최 시간은 수요일 오후 3시로 변경되었다.⁴²

장집동공회는 이러한 예배와 각 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부, 총무부, 전도부, 예배부의 4개 부서를 두었다. 1992년 당시 재무부는 양춘상 장로가 담당했으며, 총무부는 구비소, 전도부는 추적서, 예배부는 배진지, 주일학교는 서경안, 청년회는 담봉영, 자매회는 정소연, 성가대는 유허란이 각각 책임자로 일했다.⁴³

대구교회의 1993년 연간 기념일과 기념예배의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1월 3일 신년 감사 예배, 4월 18일 부활절 예배, 5월 9일 어버이날 및 경노 감사 예배, 6월 10일 성령강림절, 7월 주일학교 여름캠프, 7월 4일 수확절

40 이정희·송승석·송우창·정은주, 『한반도화교사전』(인터북스, 2019), p.54.

41 대구중화기독교회, 「주보」,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3.12.16.

42 旅韓大邱中華基督教會, 앞의 책, 1992, p.11.

43 旅韓大邱中華基督教會, 앞의 책, 1992, p.14.

(收割節), 8월 연합캠프, 10월 24일 종교개혁주일, 11월 21일 추수감사절, 12월 6일 성서 주일, 12월 25일 성탄절.⁴⁴ 한국의 일반 교회와 거의 유사한데 7월 4일의 수확절, 12월 6일의 성서 주일을 지킨 것이 달랐다.

한편, 대구교회는 여한중화기독교연합회 교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연합회 조직은 1971년에 조직되었다.⁴⁵ 1993년 개정된 ‘여한중화기독교연합회회장’(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會章)에 근거하여 연합회 조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합회 조직은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사고(司庫, 출납계), 감사 및 선교부, 교육부, 사회복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조직에 1명의 책임자를 두었다. 연합회의 직무는 모두 5가지였다. ① 연합회 일체의 업무 관장. ② 연합회의 목사단(牧師團)은 연합회 소속 교회의 목사, 장로, 전도사의 시험과 안수를 책임. ③ 연합회 소속 각 교회의 감독과 지도. ④ 계획, 선교, 교육, 자선 등의 사업. ⑤ 각 사항의 증명 문건의 처리.⁴⁶

연합회는 매년 10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출석 인원이 회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개회를 할 수 있었다. 정기총회 때는 연합회 직원의 선거, 예산 및 결산의 심사, 각 소속 교회의 당회 회의록 검사, 연합회회장(聯合會會章) 수정 등의 업무가 처리됐다. 연합회의 회장(會長)은 연합회 소속 화교교회의 목사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가운데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을 득표해야 했고, 다른 직원은 절반 이상이면 가능했다. 부회장은 연합회 소속 목사 혹은 장로가 그 대상이었다. 연합회의 경비는 각 교회 수입(특별지정헌금 제외)의 10%를 헌금으로 받아 조달됐다.⁴⁷

『양춘상장로소장자료』 가운데 대구교회가 연합회에 낸 회비 영수증 2

44 旅韓大邱中華基督教會, 앞의 책, 1992, p.26.

45 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 앞의 책, 2002, p.81.

46 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 『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會章』(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 1993), p.1·8.

47 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 앞의 책, 1992, p.8·13.

장이 있다. 1973년 3월 22일과 6월 26일 연합회에 의해 발행된 영수증이 다. 3월 22일 영수증은 51,550원, 6월 26일 발행된 영수증은 49,810원이었다. 3월 22일 발행 영수증은 197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회비였고, 6월 26일 발행의 영수증은 4월부터 6월까지의 회비였다. 연합회 회비는 이처럼 4분기로 나뉘어져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영수증 2장 모두 육필로 '15/100 회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시의 회비는 소속 교회 수입의 15%를 징수한 것 같다. 언제부터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각 회원 교회의 재정 악화로 회비를 각 교회 수입의 10%로 인하한 것으로 보인다.

2) 대구교회의 재정

교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다. 재정은 예산과 결산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양춘상장로소장자료』에는 교회의 1969년 결산자료가 있다. 교회의 1969년 연간 수입은 805,808원이었다. 주일헌금, 월정헌금, 십일조헌금이 각각 전체의 약 25%로 주요한 수입원이었다. 다음으로 감사헌금이 전체의 11.7%, 성탄절헌금이 7.3%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⁴⁸ 그 외의 청년회 헌금, 주일학교 헌금, 자매회 헌금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표 3〉 대구중화기독교회 1969년 연간 수입과 지출 및 1970년 연간 수입 내역

수입 항목	1969년 수입	1970년 수입	1969년 지출항목	1969년 지출액
주일헌금	201,216(25.0%)	168,417(16.3%)	청소·방법·수도비	16,587(2.1%)
월정헌금	196,700(24.4%)	203,900(19.7%)	전기료·전화비	37,178(4.6%)
십일조헌금	197,400(24.5%)	310,750(30.0%)	신문구독료	6,780(0.9%)
감사헌금	94,640(11.7%)	275,720(26.6%)	1층 강대	14,100(1.8%)

48 대구중화기독교회, 「西紀1969年度收支對照一覽表」,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0.1.1.

동서인본 제12호

수입 항목	1969년 수입	1970년 수입	1969년 지출항목	1969년 지출액
청년회헌금	13,312(1.7%)	15,686(1.5%)	연합회비	68,671(8.5%)
주일학교헌금	11,710(1.5%)	16,551(1.6%)	석탄·석유비	16,380(2.0%)
자매회헌금	31,630(3.9%)	25,300(2.4%)	군산교회봉헌금	20,000(2.5%)
성탄절헌금	59,200(7.3%)	-	2층 보수비	22,000(2.7%)
특별헌금	-	18,500(1.8%)	증명말소비	27,936(3.5%)
			주일학교교재비	34,200(4.2%)
			정신목사급여	462,200(57.4%)
			기타 잡비	79,052(9.8%)
합계	805,808(100%)	1,034,824(100%)	합계	805,084(100%)

자료: 대구중화기독교교회, 『西紀1969年度收支對照一覽表』,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0.1.1.; 대구중화기독교교회, 『西紀1970年度收支一覽表』,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0.12.20.을 근거로 필자 작성.
 주: 1970년의 수입액은 1970.1.1~12.13의 기간 수입임.

1970년의 수입 통계는 1970년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의 수입이기 때문에 연간 수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성탄절헌금과 2회분의 각종 주일 헌금수입이 누락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연수입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1970년의 수입총액은 1,034,824원으로 1969년에 비해 28.4% 증가했다. 만약 잔여기간의 각종 헌금수입을 포함한다면 1969년에 비해 약 4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 수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십일조헌금으로 전체의 30%를 차지, 1969년에 비해 금액과 비중 모두 늘었다. 감사헌금이 전체의 26.6%로 그 다음을 차지했고, 월정헌금 19.7%, 주일헌금 16.3%의 순이었다.⁴⁹ 수입 구성은 1969년과 1970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교회의 수입은 교회 출석 인원에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다. 1969년과 1970년의 대구교회 출석 인원은 1973년 11월 1주 동안의 통계

49 대구중화기독교교회, 『西紀1970年度收支一覽表』,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0.12.20.

가 자료에 남아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주일학교 출석 인원은 29명, 주일 오전예배 61명, 주일오후예배 26명, 수요일 기도회 22명, 자매회 10명, 청년회 28명이었다. 1주 동안 각 예배에 참석한 연인원은 176명이었다.⁵⁰ 수요일 기도회, 자매회, 청년회는 별도의 예배 모임으로 그들은 주일예배 오전과 오후 예배에도 참석한다. 따라서 중복 인원을 뺀 교인수는 116명 정도로 파악된다. 따라서 1969년과 1970년의 교인수는 대체로 약 100명 정도로 보이는데, 1969년 4월 6일 부활절 감사예배 후 전체 교인이 찍은 사진으로 볼 때도 대충 그 정도인 것이 확인된다.⁵¹

다음은 교회의 지출을 보도록 하자. 1969년의 지출액은 805,084원이었다. 수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빼면 724원의 소액 흑자였다. 지출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은 정신 목사 급여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급여에는 월급뿐 아니라 자녀 교육비, 서적비, 목회비, 의료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항목은 여한중화기독교연합회의 회비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전화료 및 전기료가 4.6%, 주일학교 교재비가 4.2%, 증명말소비 3.5%, 2층 건물 보수비 2.7%, 군산중화기독교회 한금 2.5%, 청소비·방법비·수도료 2.1%, 석탄 및 석유 구입비 2.0%, 1층 예배당 강대 구입비 1.8%, 신문구독료 0.9%였다. 기타 잡비 항목은 문방구 구입대금, 식대, 외부 목사 초청비, 목사 여비 등이다.

3) 대구교회의 사회관계

(1) 화교사회와의 관계

대구교회는 대구·경북지역 거주 화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교회의 활동 그 자체가 지역 화교사회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여한중화기독교연합회 소속 회원 교

50 대구중화기독교회, 「주보」,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3.12.16.

51 旅韓大邱中華基督教會, 앞의 책, 2018, p.50.

회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6개 교회와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했다. 대구교회의 사회관계를 상기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자.

『양춘상장로소장자료』에 의하면, 대구교회는 지역 소재 대구화교소학⁵²과 대구화교중학의 학생 전도에 힘쓴 것 같다. 대구교회는 1970년 6월 14일 화교중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배 비용으로 4,700원을 사용했다.⁵³ 같은 해 6월 16일에는 화교중학에 농구공(3,300원)을 선물했다.⁵⁴ 대구교회가 이러한 전도활동을 펼친 데는 화교중학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대구화교중학은 1958년 9월 화교소학 내에 중등부가 개설되어 화교소학 건물 2층에서 수업이 시작됐다. 학생수 증가로 1965년 화교중학 설립을 위한 건교위원회가 조직되어 모금운동을 전개, 현재의 봉덕동 부지 2,890평을 매입하여 가교사(假校舍)를 건축했다. 중등부 학생이 새로운 가교사로 이전한 것은 1965년 12월 24일이었다. 1968년에는 중학 내에 고등부를 설치했는데 당시의 중등부, 고등부 학생수는 총 262명에 달했다. 학생수가 더욱 증가하자, 1970년 3월 현재의 화교중학 교사와 기숙사를 건축했다.⁵⁵ 화교교회가 화교중학에서 예배를 드리고 농구공을 선물한 1970년 6월은 바로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구교회는 1973년 3월 7일 화교중학에 중학의 강당 건축에 1만원을 기부했다.⁵⁶

정신 목사는 타 지역 화교교회 출장을 자주 했다. 1968년 1년간 『양춘

52 대구화교소학은 1941년 모문금 등이 중심이 되어 대구중화상회의 방 한칸을 빌려 설립되었다. 학생수 증가로 1948년부터 새로운 교사 마련에 나서 현재의 부지로 이전한 것은 1950년 4월이었다. 1957년의 학생수는 329명이었다.(이정희·송승석·송우창·정은주, 앞의 책, 2019, p.83)

53 대구중화기독교교회,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0.6.14.

54 대구중화기독교교회,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0.6.16.

55 이정희·송승석·송우창·정은주, 앞의 책, 2019, pp.85-86.

56 대구중화기독교교회,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3.3.7.

상장로소장자료』를 통해 확인된 타 지역 출장 횟수는 14회였다. 주요한 출장지는 서울, 부산, 인천, 영등포, 수원, 대전 등지였다. 이들 지역은 모두 중화기독교회가 자리한 곳이다. 정신 목사가 가장 자주 출장간 곳은 서울의 한성교회였다. 2월, 5월, 6월, 8월을 제외한 8개 달에 방문했다. 당시 한성교회는 하도곤(夏道崑)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었다.⁵⁷

그 다음으로 자주 간 곳은 부산교회와 인천교회였다. 당시 인천교회는 한국인 이만열(1957~1964년) 목사가 이임한 후 무목(無牧)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부산교회는 백룡지(柏隆誌, 1967~1970) 목사가 시무하고 있었다. 수원교회는 1955년 마수신(馬守紳) 장로에 의해 설립된 후 무목 상태가 이어졌지만, 교인은 1968년 당시 20~30명에 달했다. 맥클레인 선교사가 중심이 되어 1960년에 설립한 대전교회는 1968년에 문을 닫게 되는데 정신 목사의 1월과 11월 대전 출장은 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⁵⁸ 그런데 『양춘상장로소장자료』 가운데 맥클레인 선교사가 1970년 4월 선교지인 타이베이에서 대구교회를 방문했을 때 대구교회의 접대비, 대전으로 갈 때의 차비 영수증을 보면, 대전교회가 1968년 문을 닫은 후에도 맥클레인 선교사가 대전교회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었던 것 같다.⁵⁹ 대구교회의 하전건 집사도 1970년 12월 대전에 1박 2일로 전도활동을 펼쳤다.⁶⁰

대구교회와 군산교회는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교회인 만큼 초창기 상호 교류가 활발했다. 두 교회는 맥클레인 선교사의 사역에 힘입어 설립된

57 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 앞의 책, 2013, p.76.

58 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 앞의 책, 2013, pp.75-76.

59 대구중화기독교회,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0.4.15., 1970.4.26., 1970.4. 대구교회의 맥클레인 선교사 접대비는 4월 15일 140원, 4월 26일 4,000원, 대전 행 차비 760원이었다. 대구교회는 설립 초기에 큰 공헌을 한 맥클레인 선교사를 귀중한 손님으로 대접한 것을 알 수 있다.

60 하전건,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0.12.10.

공통점이 있다. 맥클레인 선교사가 1963년 대만에서 이문빈(李文彬) 전 도사를 청빙했고, 자신이 청빙한 정신 목사의 대구교회에서 1966년 목사 안수를 받고 군산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었다.⁶¹ 이문빈 목사는 1969년 10월 대구교회 교회 건축 헌금으로 2만원을 기부했다. 영수증의 기부자명란에 이문빈 목사, 사장(司帳) 조계지(趙桂枝), 사고(司庫) 전명아(全明娥)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다.⁶² 대구교회도 군산교회에 같은 1969년에 2만원을 헌금했다.⁶³

대구교회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화교신문인 《한화일보》(韓華日報)를 구독했다. 구독료 영수증 가운데 가장 빨리 발행된 것은 1969년 7월 31일 영수증이었다. 이 영수증은 7월 한 달의 구독료 영수증으로 구독료는 220원이었다. 1973년 12월 1일의 구독료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이 신문을 구독한 것이 확인된다. 단, 1973년 당시의 한 달 구독료는 350원으로 급격히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석유파동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화일보》는 1953년 12월 8일 창간된 《중화시보》(中華時報)가 1955년 정간된 후, 1957년 3월 23일 복간된 화교신문이다. 그러나 신문 판권 소유권을 둘러싼 법률분쟁으로 1959년 한국인 주협(朱協)에게 넘어갔고, 그 뒤 중국국민당주한직속지부(中國國民黨駐韓直屬支部)로 경영권이 이양되어 발행되었는데, 1969년부터 1973년 사이는 바로 그 지부 발행의 신문이었다.⁶⁴ 그런데 이 신문은 1972년 8월 《한중일보》(韓中日報)로 제호가 바뀌었다. 따라서 대구교회의 신문구독 영수증에는 《한화일보》와 《한중일보》가 혼재되어 있다.

61 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 앞의 책, 2013, p.128.

62 대구중화기독교교회,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69.10.; 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 앞의 책, 2013, p.128. 군산교회는 군산교회가 1963년 예배당으로 사용한 것은 바로 조계지의 집이었다.

63 대구중화기독교교회, 「西紀1969年度收支對照一覽表」,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0.1.1.

64 이정희·송승석·송우창·정은주, 앞의 책, 2019, pp.538-539.

대구교회가 화교신문을 구독한 것은 한국화교 사회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교회의 존재를 화교사회에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했다. 예를 들면, 1973년 10월 쌍십절 때 대구교회의 명의로 경축 광고를 게재했다. 이때의 청구서는 한중일보사(韓中日報社)가 발행한 것으로 광고료는 1,500원이었다.⁶⁵

대구교회는 중국어 성경과 성가집을 대만에서 구입했다. 대구교회가 1973년 5월 2일 구입한 청년 성가 10권(단가 52대만元)은 타이베이 소재의 기독교서국에서 구입한 것이었다.⁶⁶ 한국화교는 대만의 영향으로 번체자를 사용했고, 성서와 성가집도 대만에서 발행된 번체자판을 사용했다. 여한중화기독교회 소속 7개 교회는 현재도 대만에서 발행된 성경과 성가집을 사용하고 있다.

대구교회는 교인의 회식 때 화교 경영의 중화요리점을 주로 이용했다. 1970년 11월 29일 대구시 수동 61번지 소재의 진성원(鎭盛園) 중화요리점에서 960원의 음식을 먹었다.⁶⁷ 1973년 5월 30일 교인 9명이 같은 진성원에서 식사를 했다. 간짜장 6그릇(1그릇 100원), 짬뽕 3그릇(1그릇 100원)을 주문하여 총 900원의 식대였다.⁶⁸ 교회가 수동 62번지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위치한 진성원을 자주 이용한 것 같다.

진성원 이외에 장관동 11번지 소재의 원화반점(元和飯店)에서 1973년 3월 16일에 350원의 식사⁶⁹, 같은 해 5월 27일에 560원의 식사를 했다.⁷⁰ 그리고 1972년 3월 6일에 수창동 24번지 소재의 기린원(麒麟園) 중화요리점에서 34,780원의 식사를 했다.⁷¹ 많은 식대가 든 것은 큰 행사 개최로

65 한중일보사, 「請求書」,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0.10.

66 타이베이 기독교서국, 「購票證」,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0.10.

67 진성원,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0.11.29.

68 진성원,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3.5.30.

69 원화반점,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3.3.16.

70 원화반점,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3.5.27.

교인 다수가 기린원에서 식사한 것 같다. 기린원 발행의 영수증에 ‘중화독 특고등요리’(中華獨特高等料理)로 표기된 것처럼 기린원은 고급 중화요리점이었다. 기린원은 1965년경 화교의 합자회사로 대구 전매청 맞은편 2층 건물로 설립됐다. 기린원은 현대식 시설과 유명한 조리사의 요리기술, 친절한 손님 서비스, 그리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식후 아이스크림 무료 제공의 서비스로 큰 인기를 끌었다.⁷² 모문금이 1920년대부터 경영하던 군방각(群芳閣) 고급중화요리점이 1968년경 경영악화로 문을 닫은 것은 기린원 설립의 영향이 컸다.

한국화교의 중화요리점 종사자는 전체 화교 인구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1958년은 58.2%에서 1964년에는 66.8%, 1972년은 77%로 상승했다.⁷³ 이러한 통계는 전국의 화교 호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대구 지역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참고로 1962년 대구·경북지역의 화교 경영 중화요리점은 303호에 달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대구교회의 교인 가운데 중화요리점 종사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한국인 사회와의 관계

대구교회는 지역의 마이노리티로 구성된 화교교회인 이상, 다수자인 한국인 사회와 여러 부문에서 관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춘상장로소장자료』 가운데 상당수의 영수증은 대구 소재 한국인 경영 상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이였다. 대구교회가 1970년 1년간 지역의 한국인 상점에서 구매한 월별 물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월은 과자, 주보용 종이, 전기스탠드 등의 구매대금으로 3,230원, 2월

71 기린원,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2.3.6.

72 徐國勛, 「大邱華僑의歷史」, 『旅韓大邱中華基督教會創立六十週年紀念特刊』(旅韓大邱中華基督教會, 2018), p.25.

73 박은경, 『한국화교의 종족성』(한국연구원, 1986), p.133.

은 연탄, 주보용 종이 등의 구매대금으로 2,000원이었다. 3월은 석유와 연탄의 구매대금으로 2,580원, 4월은 소방재료, 페넨트, 과자, 유리 등의 구매대금으로 8,450원이었다. 5월은 종이, 어버이날 선물, 슬레이트, 용마루, 물받침 등의 구입대금으로 25,340원, 6월은 철물, 건빵, 행사용 선물, 농구공 등이 구매대금으로 49,720원이었다. 7월은 만두 재료비 1,900원, 8월은 액자, 형광등 및 전구, 열쇠 등의 구입대금으로 3,720원이었다. 9월은 유리, 의자, 테이블보, 흑판, 주보용 종이 등의 구입대금으로 3,600원이었다. 10월은 국화꽃 1,000원, 11월은 위문품, 석탄, 감사절 봉투, 종이, 연탄 등의 구입대금으로 9,050원이었다. 12월은 등사잉크, 갱지, 석유, 목재, 철물, 빵, 비누, 메리야스, 양말, 수건, 과자 등의 구입대금으로 45,175원이었다.

월별 상품 구입액으로 볼 때,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은 12월이었다. 그 이유는 12월 25일에 교회의 연간 행사 가운데 가장 큰 성탄절 행사를 위한 각종 물품 구입을 했기 때문이다. 5월과 6월에 상대적으로 교회의 지출이 많은 것은 5월 어버이날 및 경로감사 예배, 6월 성령강림절의 예배가 있어 이 행사를 위한 물품 구입이 많은 것이 원인이었다.

대구교회는 지역의 한국인 교회와 활발한 교류를 했다. 대구교회의 초대 목사인 홍대위 목사가 시무하는 삼덕교회와는 홍 목사 개인 및 교인 간의 교류도 활발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삼덕교회는 대구교회 건축헌금을 했고, 홍대위 목사는 정신 목사 부재 시 대구교회에서 설교를 자주 했다.⁷⁴ 대구교회는 1970년 5월 1일 개최된 대구 대봉제일교회 헌당식 때 참가하여 축하했다.⁷⁵ 정신 목사는 1973년 성주의 초전교회를 방문하여 주일 설교를 했으며,⁷⁶ 1969년 1월 대구교도소를 방문하고 수형자를 위한

74 회계,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0.2.1.; 회계,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3.9.9.

75 대구중화기독교회,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0.5.4.

전도활동을 했다.⁷⁷

대구교회는 지역의 한국인 교회와 전도 이외에 복지기관에 각종 헌금을 했다. 대구교회는 경북 달성군 가창면 용계동 619번지 소재의 신일양로원에 1969년과 1973년 각각 500원을 기부했다.⁷⁸ 그리고 정신 목사 명의로 1970년 5월 26일에 1970년도 한센병 환자를 위한 ‘나협회비’로 500원을 기부하고,⁷⁹ 1973년에는 양춘상 장로 명의로 1973년도 ‘나협회비’ 300원을 기부했다.⁸⁰ 이외에 대구교회는 연간 1천원의 적십자 회비를 납부했다.⁸¹

『양춘상장로소장자료』에는 대구교회가 납부한 각종 공과금 영수증이 있다. 1970년에는 ‘방법비’ 혹은 ‘야경비’의 명칭으로 방법비를 연간 6회, 1회당 400원을 납부했다.⁸² 1973년에는 경북 경찰국 경목위원회(警牧委員會)가 징수하는 ‘경목사업보조비’로 매월 1천원을 납부했다.⁸³ 경목위원회는 경찰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 시도 경찰서에 설치된 조직인데, 서울시 경목위원회가 1966년 5월 설치된 것이 효시이다. 경목위원회에는 목사가 배치되어 경찰을 대상으로 한 전도활동을 했으며, 경목사업보조비는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었다. 그 외에 지역의 환경미화원을 위한 청소비로 연간 4회 납부했으며, 『양춘상장로소장자료』에 의하면 1973년에는 1분기 당 2,700원을 냈다.⁸⁴

76 정신,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3.

77 정신,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69.1.4.

78 蔣春英,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69.12.25.; 신일양로원,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3.

79 정신, 「나협회비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0.5.26.

80 대한나협회, 「특별회원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3.

81 정신, 「적십자회비 통지서」,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0.1.

82 남성구동방법위원회, 「방법비영수증서」,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0.1.29.; 남성구동방법위원회, 「야경비영수증서」,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0.5.19.

83 경상북도경찰국경목회, 「경목사업보조비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3.12.31.

대구교회는 화교신문 이외에 지역신문인 《영남일보》와 기독교 관련 의 《크리스찬신문》을 구독했다. 《영남일보》의 구독료 영수증은 1970년 1월부터 12월, 1973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영수증이 남아있다. 《영남일보》의 구독료는 1970년 5월까지의 220원, 1970년 6월부터 280원으로 인상된 후, 1973년에는 350원으로 인상되었다. 대구교회는 기독교 관련 의 《크리스찬신문》을 구독했다. 이 신문은 1960년 7월 서울에서 창간된 기독교 신문으로 구독료는 1973년 4개월에 400원이었다.⁸⁵

대구교회는 1972년 12월 제8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 축하 광고를 화교신문인 《한중일보》에 냈다.⁸⁶ 박 대통령 취임식은 1972년 12월 27일에 거행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한중일보》에 축하 광고를 낸 것 같다. 광고료는 1천원이었다. 당시 한국화교의 ‘조국’인 중화민국(대만)과 한국은 모두 ‘반공’을 국시로 한 우방이었기 때문에 화교는 박정희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대구교회가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했다기 보다는 당시의 화교사회의 분위기상 대구화교협회 등과 함께 축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양춘상장로소장자료』에 근거하여 대구중화기독교회의 1967년부터 1973년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교회 건축과정과 교회 운영 실태 그리고 화교 및 한국인 사회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여기서는 검토 결과 확인된 사실이 한국화교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

84 정신, 「청소수수료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3.3.31.

85 정신, 「크리스찬신문 영수증」,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3.5.7.

86 한중일보사, 「박대통령취임 광고비 청구서」, 『양춘상장로소장자료』, 1973.1.

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양춘상장로소장자료』의 가치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7개 화교교회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각 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의 화교교회에 관한 연구에서 처음으로 교회 내부의 자료를 통해 화교교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운영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역으로 이러한 검토 결과는 이 자료의 가치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었다. 다른 화교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자료가 발굴되어 화교교회의 연구가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대구교회 설립의 특성이다. 대구교회는 해방 후 설립된 화교교회 가운데 수원교회 다음으로 설립된 교회로 한국 제3의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다. 교회 설립 과정에서 한국인 흥대위 목사가 교회의 초석을 놓고 기반을 닦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해방 후 설립된 수원교회는 화교 마수신에 의해, 군산교회와 대전교회는 미국인 맥클레인 선교사에 의해 초창기 교회가 운영된 것과 조금 양상이 달랐다. 하지만 맥클레인 선교사와 한국인 박부옥 전도사가 흥대위 목사를 적극 도와준 결과이기도 했다.

셋째, 대구교회 건축물의 1층이 대구화교 모문금에 의해 시공되었다는 점이다. 모문금은 대구·경북지역 주요 종교 건축물을 시공한 쌍홍호의 경영자로 대구교회 1층은 그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한국인 이태중이 교회 2층 증축공사와 목사 거주 주택 공사를 담당했다.

넷째, 대구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장집동공회를 조직하여 교회를 운영했으며, 1971년 조직된 여한중화기독교연합회에 소속되어 활동했다는 점이다. 대구교회를 비롯한 연합회 회원 교회는 교회 수입의 15% 혹은 10%를 회비로 내 연합회 조직을 운영했다. 교회의 예배와 각종 명칭은 한국의 장로교회와 거의 비슷했다.

다섯째, 대구교회는 교인의 각종 헌금을 수입으로 하여 운영되었다. 십

일조헌금, 주일헌금, 월정헌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것은 한국의 교회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대구교회는 수입에 맞게 지출을 했으며, 가장 큰 지출항목은 정신 목사 월급과 생활비로 전체의 약 6할을 차지했다. 1970년 당시 교인수는 약 100명이었다.

여섯째, 대구교회는 대구지역 화교사회, 타 지역 화교교회, 화교언론 등과 관계를 맺으며 운영을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활동은 화교교회의 기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구지역의 교회, 경찰(경목위원회) 그리고 지역의 방범 및 환경미화원과도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이 엿보였다.

일곱째, 대구교회는 대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 성경과 성가집은 대만에서 구매했으며, 목회자와 특별전도회 강사는 대만에서 파견된 목사가 많았다.

한편, 대구교회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화교의 해외 재이주로 인해 교세(教勢)는 위축되어 갔다. 대구교회가 1992년 제작한 교회 수첩에 기재된 교인의 수는 59명이었다. 이 인원에는 주일학교 학생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수첩에 해외 재이주 교인의 성함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모두 27명에 달했다. 대구 거주 교인수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이었다.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부터 한국정부의 화교를 대상으로 한 각종 경제활동 제한조치, 주요한 종사 업종인 중화요리점이 한국인과의 경쟁으로 경영이 악화된 것이 해외 재이주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대구교회 교인 가운데 해외 재이주 교인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만 거주 교인은 17명으로 전체의 63%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5명(19%), 홍콩 1명, 중국 산둥성 1명, 캐나다 1명, 호주 1명, 거주지 미상 1명이었다. 대만 재이주 교인은 대부분 타이베이 및 그 부근에 거주하고 있었다. 교회 수첩에 기재된 해외 재이주 교인은 양춘상 장로, 구비소 집

사, 서국훈 장로 등의 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구교회의 임원을 지낸 관계로 거주지 파악이 쉬웠기 때문에 기재되었을 것인데 파악되지 않은 교인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하여튼 2000년대 들어서도 대만 및 미국으로의 재이주가 멈추지 않아 현재 대구교회에 출석하는 화교 인원은 10여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국화교 출신으로 미국으로 재이주한 한화(韓華)가 이주지에서 신앙공동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한화기독교단계’(韓華基督團契)는 1987년경 설립되어 『한화단계』(韓華團契)라는 잡지를 편찬하여 활동하고 있다.⁸⁷ 또한 한국화교 출신 손선지(孫善志) 목사가 대만, 미국, 캐나다 등 세계에 이산한 한화(韓華)를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⁸⁸ 앞으로 해외 재이주 한화 크리스찬의 이주지에서의 종교활동과 정체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87 韓華基督團契 編, 『韓華團契 HAN HWA CHRISTIAN FELLOWSHIP』 21期(2011~2012)(韓華基督團契, 2011).

88 손선지 목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랜드 하이츠 소재의 은혜의여정화인교회의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교회의 교인은 미국 재이주 한화로 50여명이다. 그는 2019년 9월 21일 타이베이에서 대만 한화를 대상으로 한 부흥회 행사인 ‘2019 은전지로(恩典之路)’를 300여명의 한화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참고문헌

1. 저서

- 大韓韓藥協會 편, 『大韓韓藥協會百年史』, 서울: 社團法人 大韓韓藥協會, 2006.
- 대구화교정착100주년기념사업회 편, 『대구화교정착100주년기념자료집 : 100년
이웃 100년 친구』, 대구: 대구화교정착100주년기념사업회, 2006.
- 大韓民國公報處統計局, 『1952年 大韓民國統計年鑑』, 서울: 공보처, 1953.
- 劉傳明, 『中國心: 정동에서 향하로』, 서울: 중화기독교회, 2008.
- 三德教會 편, 『三德教會三十年史』, 대구: 삼덕교회, 1984.
- 이정희 · 송승식 · 송우창 · 정은주, 『한반도화교사전』, 서울: 인터북스, 2019.
- 조선은행조사부, 『경제연감 1949년』, 서울: 조선은행, 1949.
- 旅韓大邱中華基督教會, 『教會手帖』, 대구: 旅韓大邱中華基督教會, 1992.
- 旅韓大邱中華基督教會, 『旅韓大邱中華基督教會創立六十週年紀念特刊』, 대구:
旅韓大邱中華基督教會, 2018.
- 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 『旅韓中華基督教百年紀念特刊』, 서울: 旅韓中華基督教
聯合會, 2013.
- 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 『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會章』, 서울: 旅韓中華基督教
聯合會, 1993.
- 旅韓中華基督教聯合會, 『旅韓中華基督教創立九十週年紀念特刊』, 서울: 旅韓中華
基督教聯合會, 2002.
- 華僑誌編纂委員會 編, 『韓國華僑誌』, 타이베이: 華僑誌編纂委員會, 1958.
- 赤尾光春 · 早尾貴紀 編, 『ディアスポラから世界を讀む』, 동경: 明石書店, 2009.

2. 논문

- 김교철, 「在韓 중국인 교회 설립과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복음과 선교』
제372집, 서울: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2017.
- 김교철,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타문화권 교회 설립에 관한 선교학적 고찰:
1913년부터 1957년까지 중국 산둥(山東)과 만주국(滿洲國)을
중심으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서울:

-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2017.
- 盧樹珠, 「旅韓華人教會史」,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1978.
- 이정희, 「20세기 전반기 대구지역 화교의 경제적 활동(1905~1955년)」, 『大丘史學』 제80집, 대구: 대구사학회, 2005.
- 이정희, 「조선화교의 민간 신앙과 비밀결사: 거선당과 의선당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20집, 서울: 한국사회사학회, 2018.
- 이정희, 「조선 화교의 성당건축 시공 활동(1880년대~1930년대):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51,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17.
- 이혜원, 「재한 구미 선교사의 조선중화기독교회 지원 사역에 대한 일 고찰: 1902~1937년 선교부공의회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 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9호, 2018.
- 이혜원, 「1945년 이전 조선중화기독교 원산교회 연구: 미션스쿨과 거류민 전도 중심 교회」, 제5회 한국화교학인연구회 발표논문, 2019.6.29.
- 이혜원, 「화교 개신교인 건축청부업자의 한국 근대 미션계 건축시공 활동: 서울지역의 해리 장과 왕공온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제367회 학술발표회 발표논문, 2018.5.12.

3. 기타

『양춘상장로소장자료』

담봉영 집사 인터뷰(대구 익생촌 한약방에서 2005년 2월 20일).

양춘상 장로 인터뷰(대구 익생촌 한약방에서 2005년 2월 20일, 2006년 4월 25일).

世界華福中心(CCCOWE) 홈페이지(<http://www.cccowe.org>).

韓華基督團契編, 『韓華團契 HAN HWA CHRISTIAN FELLOWSHIP』 21期 (2011~2012), 캘리포니아: 韓華基督團契, 2011.

ABSTRACT

Chinese Christian Church of Daegu and Chinese Local Community

Yi Jung-He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ctual administration condition of the Chinese Christian Church of Daegu through ‘Archive of Yang Chun-Hsiang’s Materials’. This Archive is valuable materials including the church’s receipts, bills, and so on. The Chinese Christian Church of Daegu was started by Hong Dae-Ui of Korean pastor in 1957. And the base of the church’s administration was strengthened from 1962 to 1974 by Ding Shin of Overseas Chinese pastor in Korea. Wu Wen-Jin of Overseas Chinese in Daegu and Korean Yi Tae-Jung constructed the Church’s architecture from 1967 to 1968. The Church was administrated by committee of church’s elder and deacon. Seven Chinese church in Korea organized Chinese Church Union in 1971, the Chinese Christian Church of Daegu was a member of the Chinese Church Union. The church was administrated by member’s revenue that consisted of tithe and so on. To spread the gospel, the church maintained a good relationship between overseas Chinese society and Korean society in Daegu. The church’s Bible and hymnbook were imported from Taiwan.

Key Words : Overseas Chinese Church, Chinese Christian Church of Daegu, Archive of Yang Chun-Hsiang’s Materials, Chinese Church Union in Korea, Ding Shin, Hong Dae-Ui, Chinese Christian

*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hwsan@hanmail.net

동서인문 제12호

Church of Seoul, Taiwan

【 투고일 2019.09.17. 심사완료일 2019.10.11. 게재확정일 2019.10.22 】